

성별 및 성희롱 경험에 따른 성희롱 통념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 간의 관계

김 정 인
서비스테크

손 영 미[†]
명지대학교

김 효 창
중앙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성희롱 통념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에 대한 남녀 간 인식차이를 확인하고, 이들 변인들과 성희롱 경험과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18명(여자 166명, 남자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희롱 통념과 성역할 관련 변인들에 대한 남녀 간의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남학생들은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오해와 과잉반응으로 인해 제기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다. 둘째, 남학생들의 성희롱 경험 유무에 따른 성희롱 통념과 성역할 관련 변인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희롱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성희롱 행동을 친근감의 표현, 직장생활의 활력소 정도의 가벼운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고, 성희롱 피해자의 반응을 양심을 품거나, 지나치게 과장되게 표현한 과잉반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성희롱 경험이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에 비해 대인 폭력적 행동에 대해 더욱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남학생들의 성희롱 행동에 대한 성희롱 통념과 성역할 관련 변인들 간에 유의미한 설명변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성희롱 행위에 대한 과잉반응과 대인 폭력에 대한 수용성 정도(대인폭력수용)요인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들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제한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성희롱, 성역할, 성희롱통념, 강간, 성역할고정관념, 성폭력

[†] 교신저자 : 손영미, 명지대학교 여가경영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E-mail : shonym@hanmail.net, Tel : 02-300-0884

성희롱은 영어의 'sexual harassment'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성희롱이라는 개념은 1976년 남성상사의 성적 접근(제안)을 거절한데 대한 보복으로 직장에서 해고되었음을 주장하는 여성이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현재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Fitzgerald, Swan, & Magley, 1997).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희롱과 관련된 주요 법률로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년 7월 1일 시행)을 들 수 있는데 이 법에서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상 성희롱의 개념에서 성희롱 요건을 따져보면,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행위주체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동료, 부하직원)를 포함하며, 지위이용이나 업무관련성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행위유형은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언어나 행동 등으로 혹은 이를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때 즉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때 성희롱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성희롱은 일부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나 참으면 되는 사소한 문제 혹은 조직 내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제가 아니다. 1993년 서울대에서 발생한 조교에 대한 교수의 성희롱 사건이 사회의 주목을 받으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성희롱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2000년대를 넘어선 지금도 사건발생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

부(2000)에서 전국 공공기관 남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희롱 발생률에 대한 결과를 보면, 86.6%의 여성들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가벼운 성적 농담을 기준으로 73%의 남성들이 성희롱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성의 19.7%가 성희롱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피해자의 구성비를 보면 여성이 91.5%이고 남성이 8.5%였으며, 구체적인 성희롱 행동 내용을 살펴보면 가벼운 형태의 성적 농담(79.9%)과 음담패설(42.5%)부터 심각한 유형인 심한 신체접촉(16.1%)과 성관계 요구(4.9%)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물론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조직의 피해를 살펴보면 Jenson과 Gutek(1982)은 피해자의 20%가 우울증을, 80%는 메스꺼움을 그리고 68%가 분노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성희롱 문제로 인하여 기업들이 지불해야 하는 재정적 손실도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Terpstra & Cook, 1985), 작업의 효율성(일의 능력) 감소, 결근 및 이직과 관련된 감추어진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Gutek & Koss, 1993; Lach & Gwartney-Gibbs, 1993; Terpstra & Baker, 1989). 조직이 부담해야할 숨겨진 비용은 성희롱 사건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다(Brooks & Perot, 1991). 따라서 개인의 인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이 성희롱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고 조직차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성희롱에 대한 보다 체계화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희롱 발생에 대한 설명모델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성희롱의 발생 원인에 관한 수많은 이론과 설명 모델들이 등장하였다. 몇몇 연구자들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성희롱 행동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회문화적 모델에서는 여성을 평가절하하는 신념, 태도 등(Tangri & Hayes, 1997)과 같은 여성에 대한 남성지배적 사고(Malovich & Stake, 1990)에 의해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일반적인 남성 지배적 사고의 표출이라고 본다(Farley, 1978; MacKinnon, 1979). 이 모델에 따르면, 성희롱(괴롭힘)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기제이며, 남자와 여자는 이와 같은 지배구조와 종속화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사회화된다고 주장한다. 남자들은 공격성과 자기주장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반면에 여자들은 수동적이 되도록, 갈등을 피하도록, 성적으로 매력적이 되도록, 그리고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도록 사회화된다는 것이다(Tangri, Burt, & Johnson, 1982).

Vaux(1993)는 성희롱은 남자들이 사회에서 더 많은 권력이 주어지는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일종의 “무형적 배제”의 한 형태라고 제안하였다. 결국, 권력이 부여된 지위를 확보한 남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권력을 덜 가진 집단(즉, 여성)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나 상처를 애써 무시하려 한다고 본다. 사회문화적 관점의 성희롱 모델은 성희롱을 남녀 간의 문화적으로 합법화된 권력과 지위상 차이의 결과로 본다(Gruber & Bjorn, 1986).

한편 사회문화적 모델과 더불어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성희롱 행동에 대한 인과모델은

성희롱 행동이 조직 내에서의 불평등한 권력과 지위의 결과로 초래된다고 주장하는 조직 모델이다(Gruber, 1992). 조직모델에서는 조직이 위계적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낸 권력 차등화를 통하여 성희롱을 조장한다고 가정한다(Tangri 등, 1982). 즉 조직 내에서 권위와 더불어 합법적 직위를 갖는 사람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희롱은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부하직원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제공한다고 본다.

거시적 관점에서 성희롱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문화적 모델과 조직모델에서는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성역할 기대에 의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조직 내에서 위계에 의한 남녀 간의 권력의 차이가 성희롱을 유발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과정에서 실제 성희롱 행동에 보다 중요한 결정인자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개인차이다. 더구나 사회문화적 모델에 대한 설명을 입증하거나 조직의 권력에 의한 설명을 입증하려할 때 개인차 문제를 도외시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차를 단위로 하고 피해자 및 비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및 비가해자에 대한 지각과 개인 수준의 특성을 통해 성희롱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심리학적 접근 방식이 개인차 모델이다. 개인차 모델은 주로 성희롱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과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성들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Gutek과 Morasch(1982)는 성희롱 가해자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하였으며, Muehlenhard와 Linton(1987)은 언어적 위협 및 강간과 같은 성적 공격성을 범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강간통념수용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Burt(1980) 역시 잠재적으로 성적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과 관련된 변인으로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강간통념수용을 언급하였다. 그녀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수용하거나 혹은 사회에 만연된 잘못된 강간 관련 통념을 수용하는 여성일수록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차 모델들은 우리에게 가해자의 특성과 피해자가 되거나 혹은 가해자의 표적이 될 특성들을 확인시켜주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국내에서 행해진 연구로는 이석재의 연구(1999)와 이석재와 최상진의 연구(2001)을 들 수 있다. 이석재(1999)는 강간통념이라는 용어를 소개하고 강간통념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석재와 최상진(2001)은 강간통념수용 정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성폭행 사건 지각에서의 차이를 밝혀냈다.

성희롱에 대한 통념

현재 성희롱 통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희롱에 대한 정의와 통념의 의미를 중첩시켜, 성희롱 통념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자 한다. 성희롱에 대한 법적·학문적 정의를 요약해보면, 첫째, 성희롱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에 의해 가해지는 원치않는 성적 관심 또는 성적 언행이다. 둘째, 성희롱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 속성을 띤 시각적, 언어적 또는 신체적 형태의 언행이다. 셋째, 성희롱은 그러한 언행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굴욕감과 같은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및 물질적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넷째,

성희롱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있는 지위와 힘을 가진 자가 상대방이 원하는 않는 성적 언행을 함으로써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성희롱 행위 수용여부가 개인의 고용 및 인사 상의 불이익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김양희, 1995; Cole, 1986). 통념이란 사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일반적인 신념으로, 복잡한 정보들을 단순화시키고, 조직화함으로써 그러한 정보들을 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홍대식, 2004). 이상의 개념을 중첩시켜, 성희롱 통념을 정의해보면, 가해자의 원치않는 관심과 시각적·언어적, 신체적 언행을 해석하고,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도록 하는 편파되고, 고정관념화 되거나 잘못된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이지만 광범위하면서 꾸준히 유지되어온 것으로, 가해자의 성희롱을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신념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인들이 성희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류성 통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희롱 발생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려는 통념으로 사람들은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흠을 찾아서 일반적으로 “당할만하다, 그러고 다니니 당하지”라며 당연하다는 듯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피해자의 잘못이 전혀 없는 가해자의 일방적 행위일지라도 잠재적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생겨난 것으로, 피해자를 격하시키고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결국 이 같은 왜곡된 인지적 요인들은 가해자의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의 원인을 피해자 책임으로 전가시키며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통념의 만연은 피해자

당사자의 적극적인 대처를 방해한다(Jenson & Gutek, 1982). 성희롱의 책임을 피해자에게서 찾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성희롱을 남성의 입장에서 해석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 통념은 결국 여성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고, 남성에게는 성희롱을 해도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둘째, 행위에 대한 오해 및 과잉반응과 관련된 통념으로 “희롱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놀렸을 뿐이야” “성희롱은 별 것 아닌데 여자들이 과잉 반응한 것이다” 등과 같은 것들이 해당한다(김정인, 최상진, 손영미, 2001). 이러한 통념은 성희롱의 발생이 피해자가 별 것 아닌 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통념은 성희롱 행동을 가볍게 여기며 성희롱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신체적 피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축소·왜곡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희롱에 대한 통념을 분석한 연구결과(김정인, 최상진, 손영미, 2001)를 보면,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성희롱이 유발된 원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있으며, 피해자들이 친근감의 표현을 오해하거나 사소한 문제를 확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여러 연구(Lott, Reilly, & Howard, 1982; Reilly, Lott, & Gallogly, 1986)에서도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피해자를 더 책망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소위 성희롱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건들이 남녀 간의 정상적인 성적 상호작용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희롱에 대한 통념의 만연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이 가볍게 취급되거나 혹은 그 문제가 행여 자신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을 유발시켜 피해사실에 대한 지각 및 보고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은 성희롱을 반대하는 규범들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킴으로서 성희롱 가능성을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역으로 성희롱에 대한 높은 성향은 기존의 성적 행동들을 사후에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써 성희롱 통념을 수용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실제 많은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행위의 심각성이 부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성희롱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비교적 가벼운 형태의 성희롱으로 분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 성희롱 허용 역치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허용역치가 높은 사람의 경우, 그만큼 성희롱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김정인, 2000; Koenig & Ryan, 1986).

성역할 관련 태도와 성희롱

사회학적인 관점(Koss, Leonard, Beezley, & Oros, 1985)에서 문화적 가치관은 성적 행동을 결정한다고 본다. 특히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결합하여 남성의 권력과 공격성을 강조하는 가치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강간-허용적 태도를 발달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sher & Tomkins, 1988). 성적 공격성을 조사한 많은 연구자들은 남자들에게서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예측하는 수많은 성적 및 행동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Koss와 Dinero(1988)는 강간통념, 여성에 대한 적대감, 존립가능한 관계성 수단으

로서 대인폭력의 수용, 성에 관한 보수적 태도와 신념들, 성관계는 기본적으로 착취적이라는 신념, 남성성과 관련된 부정적 가치관들이 성적 공격성을 예측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Petty와 Dawson(1989)은 자기-보고 성적 공격성과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 심리적 특성들은 높은 충동성, 높은 지배성(자신의 환경을 통제하려는 욕구), 공격성(관계성의 수단으로서 대인폭력의 수용) 및 사회적 인정에 대한 강한 욕구(여성에 대한 성적인 공격적 행동을 통해서 남자 또래들로부터 사회적 수용을 얻어내려는 욕구)였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성희롱을 할 가능성이 높은 남자들의 인지적 특성을 연구한 Pryor(1987)는 성희롱 행동 가능성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희롱을 할 가능성이 높은 남자들은 적대적 성적 신념(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적대적이라는 신념), 강간통념수용, 즉 강간의 이유에 대한 잘못된 수용(여성은 강간당하는 것을 좋아하고, 강간당할 이유가 있으며, 그것을 추구한다는 신념), 성희롱에 대한 관용도, 전통적인 남성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승인, 강간을 할 가능성 등에 대한 측정치들 상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성희롱을 할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여성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지 못하며, 여권주의자 태도 척도 상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성적 공격자들은 성적인 공격을 범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남자들과 비교했을 때, 더 강력한 친-강간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Feild, 1978), 더 강한 적대적 성 신념을 지니며, 성

역할 고정관념을 더 많이 표명하였으며(Burt, 1980; Koss 등, 1985; Koss & Dinero, 1987; Malamuth, Check, & Briere, 1986; Rapaport & Burkhart, 1984); 대인 폭력을 더 많이 수용하였고(Burt, 1980; Koss 등, 1985; Koss & Dinero, 1987; Malamuth, 1987; Rapaport & Burkhart, 1984), 여성들에 대해서 보다 적대적이었으며, 지배성을 성적활동에 대한 동인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Malamuth, 1987).

이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성폭력과 성역할 관련 태도간의 관계성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성희롱과 성역할 관련 태도 변인에 대한 연구는 Pryor(1987)의 연구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든데, 이마저도 인지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성희롱 가능성 척도에 대한 타당성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더욱이 성희롱 통념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이 성희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희롱 통념과 성희롱 관련 태도에 대한 남녀 간의 지각 차와 성희롱 행동과 성희롱 통념, 성역할 관련 태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희롱 통념과 성희롱 관련 태도와의 관련성에 있어 남녀 간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성희롱 행동 유무에 따른 성희롱 통념과 성희롱 관련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성희롱 행동에 대한 성희롱 통념과 성희롱 관련 태도의 설명력을 살펴본다.

방법 및 절차

조사 대상

본 조사는 서울시내 C 및 S 대학교와 경기도 소재 K 대학 및 G 대학 학생 318명(여자 166명, 남자 15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학년 별로 인원구성을 보면 1학년 32명(10.1%), 2학년 115명(36.2%), 3학년 75명(23.6%), 4학년 96명(30.2%) 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2세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의 군대 경험을 보면, 전체 152명 중 병역을 필한 학생이 92명, 미필자 53명, 면제가 7명이었다. 성경험은 유경험자가 84명(58%)이었고 무경험자는 59명(41.3%)로 나타났으며, 첫 성경험 연령은 평균 20.7세였다

조사 도구

성희롱 통념수용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에 대한 남녀 간 인식차를 확인하고, 이들 변인과 성희롱행동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된 조사도구는 다음과 같다.

성희롱 통념

성희롱 통념수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김정인 등(2001)의 연구에서 확인된 성희롱 통념과 성폭력 및 성희롱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개되고 있는 통념들을 취합하여 2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어서 문항내용의 타당성과 중복 정도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24개 문항만이 본 연구에 이용되었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I(‘과잉반응’ 요인)은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여자들은 직장 혹은 학교 내의 성희롱 발생 실태에 대해서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등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73으로 나타났다. 요인 II(‘행위오해’ 요인)는 ‘악의 없는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직장생활(학교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우리 사회의 통념상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성적 농담은 수용해야 한다’등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76이다. 요인 III(‘피해자 책임’요인)은 ‘여자가 정숙하다면 성희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희롱은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등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귀인시키려는 경향성을 묻는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77이다. 마지막으로 요인 IV(‘피해과소평가’ 요인)는 ‘성희롱 문제제기로 고용상 혹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 ‘성희롱을 거부한다고 해서 직장(학교)에서 인사상(학점)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등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62이다. 4개 요인들 모두의 전체 변량은 44.5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역할 관련 척도

성역할 관련태도 척도는 Burt(1980)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적대적 성신념, 대인폭력수용 및 성역할 고정관념을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적대적 성신념은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Cronbach α 를 구한 결과 .76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인폭력수용은 7개 문항(Cronbach α : .65), 성역할 고정관념은 7개 문항(Cronbach α : .67)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모두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 내용을 더 많이 수용하거나 동의함을 의미한다.

성희롱 행동

성희롱 행동은 김현정(1998)의 논문에서 사용된 성적 괴롭힘 척도에서 학내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간주되는 언어적 성희롱과 강압적 성희롱적 문항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듣기 민망한 야한 농담을 하였다’,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였다’, ‘여성의 신체나 외모에 대해서 모욕감을 주는 이야기를 하였다’, ‘성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뒷풀이 중 취한 척하면서 팔로 허리를 감싸 안았다’, ‘대화 중에 신체 일부를 뚫어지게 보거나 야릇한 눈길을 보냈다’, ‘실습 혹은 실험 도중에 고의적으로 신체를 접촉하거나 몸에 손을 댔다’, ‘원치않는 신체접촉이나 애무를 시도하였다’ 등 8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없었다(0점)에서 자주 있었다(5점)의 6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5이다. 본 척도는 남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는 대학생들의 경우, 일반 사회인들에 비해 성희롱 행동 발생빈도가 낮은데다, 여학생의 경우, 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자료 분석

질문지는 총 340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2부를 제외한 31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10.0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역할 관련 태도 변인들과 성희롱통념 하위요인에 대한 남녀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성희롱 경험 유무에 따른 이들 두 변인에 대한 지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성희롱

경험정도는 남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본 t-검증은 남학생들 중에서 성희롱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 지각차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성희롱통념, 성역할 관련 태도변인과 성희롱 행동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이들 변인의 순수한 설명변량을 확인하기 위해 성희롱 행동과 연령, 성경험, 성경험 나이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연령과 성경험이 성희롱 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회귀식의 제 1단계에 enter방식으로 투입하였다. 이후 제 2단계에 성희롱통념과 성역할 태도변인들을 enter방식으로 투입하였다. 성희롱 경험정도는 남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회귀분석 역시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결 과

성희롱 통념에 대한 남녀 간 차이

성희롱 통념지각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성희롱 통념에 관한 모든 하위요인에 대해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과잉반응’ 요인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 비해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실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였으며($t=7.74, p<.001$), 여자들이 직장 혹은 학교 내의 성희롱 발생 실태에 대해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하였다($t=6.73, p<.001$). 또한 남자가 여자에 비해 학점이나 승진을 위해서 여성은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이용할 수 있으며

표 1. 성희롱 통념과 하위요인들에 대한 남녀 간 비교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t값
과잉반응	남	2.81	.54	10.61***
	여	2.13	.52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남	3.17	.80	7.74***
	여	2.44	.86	
여자들은 직장 혹은 학교내의 성희롱 발생실태에 대해서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남	3.01	.79	6.73***
	여	2.41	.79	
학점이나 승진을 위해서 여성은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이용할 수 있다	남	3.30	1.06	6.39***
	여	2.54	1.04	
성희롱 사건은 성적인 농담을 여성들이 과잉반응해서 문제가 확대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	2.64	.75	10.43***
	여	1.81	.67	
성희롱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서 한 행동이다	남	2.51	.85	6.66***
	여	1.87	.85	
성희롱은 개인간의 사소한 사건임에도 사회문제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	2.15	.78	8.70***
	여	1.48	.58	
남녀관계에서 여자가 “싫어”라고 말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남	2.92	.95	5.07***
	여	2.34	1.09	
행위오해	남	3.15	.54	9.99***
	여	2.52	.61	
악의 없는 성적인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직장생활(학교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남	3.07	1.00	6.07***
	여	2.36	1.10	
우리 사회의 통념상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성적 농담은 수용해야 한다	남	2.94	.91	6.77***
	여	2.25	.92	
남자가 매력적인 여성에게 성적인 유혹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남	3.34	.94	4.62***
	여	2.83	1.05	
남자들이 사회생활에서 여성에게 성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남	3.92	.72	7.46***
	여	3.22	.92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농담을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남	3.20	1.07	9.03***
	여	2.21	.88	
성희롱 사건은 친근감의 표현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남	2.38	.90	5.18***
	여	1.88	.83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	3.18	.97	2.77**
	여	2.88	.98	

표 1. 계속

문항	성별	평균	표준편차	t값
피해자 책임	남	2.53	.56	7.62***
	여	2.08	.55	
여자가 정숙하다면 성희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남	2.11	.90	6.02***
	여	1.57	.69	
성희롱은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남	2.83	1.16	4.22***
	여	2.33	.94	
성희롱을 당하는 사람은 그럴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남	2.42	.82	4.96***
	여	1.95	.84	
여자들이 성희롱을 당하는 것은 대부분 야한 옷을 입고 자극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남	2.51	.97	6.29***
	여	1.87	.84	
성희롱 사건 발생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피해자의 책임도 크다	남	3.11	1.01	2.02*
	여	2.87	1.03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은 평상시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남	2.18	.77	3.64***
	여	1.86	.80	
피해과소평가	남	2.37	.59	6.52***
	여	2.01	.49	
성희롱 문제제기로 고용상 혹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	남	2.38	.71	5.55***
	여	1.95	.69	
성희롱을 거부한다고 해서 직장(학교)에서 인사상(학점)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다	남	2.60	.94	2.29*
	여	2.37	.86	
직장(학교)내에서 성희롱은 무시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남	2.13	.87	4.62***
	여	1.71	.76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들은 심각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받는다	남	3.64	1.03	0.10
	여	3.65	1.26	

*** $p < .001$ ** $p < .01$ * $p < .05$

($t=6.36, p<.001$), 성희롱 사건은 성적인 농담을 여성들이 과잉반응해서 문제가 확대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t=10.43, p<.001$). 이 밖에도 남자가 여자에 비해 성희롱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은 피해자

가 양심을 품고서 한 행동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며($t=6.66, p<.001$),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8.70, p<.001$).

‘행위오해’ 요인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 비

해 성희롱적 행동을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악의없는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활력소가 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며($t=6.07, p<.001$),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성적 농담은 일정부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6.77, p<.001$). 또한 여자에 비해 남자의 경우, 남자가 매력적인 여성에게 성적 관심을 갖고($t=7.46, p<.001$), 성적 유혹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며($t=4.62, p<.001$),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농담은 친근감의 표현이기 때문에($t=5.18, p<.001$)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t=9.03, p<.001$).

‘피해자 책임’ 요인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 비해 성희롱의 책임을 피해자 쪽으로 귀인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성희롱은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으며($t=4.22, p<.001$),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t=2.02, p<.05$). 또한 여자에 비해 남자의 경우, 성희롱을 당하는 사람은 정숙하지 못한 행동($t=6.02, p<.001$), 야한 옷을 입고, 자극적인 행동을 하거나($t=6.29, p<.001$), 평상시 복잡한 남자관계를 갖는 등($t=3.64, p<.001$) 성희롱 당할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t=4.96, p<.001$).

마지막으로 ‘피해과장’ 요인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 비해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다른 요인에 비해 남녀간 차이가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가 여자에 비해 성희롱 문제제기로 불이익을 당하는

여성이 거의 없으며($t=5.55, p<.001$), 직장(학교) 내에서의 성희롱은 무시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t=4.62, p<.001$). 그러나 남녀모두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들은 심각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받는다(남자: 평균 3.64, 여자: 평균: 3.65)’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유의미한 남녀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t=0.10$).

본 결과는 성희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남녀 간에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 많이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녀 간에는 성희롱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성희롱적 행동을 가벼운 농담이나 수용해야 할 것들, 매력적인 이성을 향한 자연스러운 구애행위 등으로 인식하는 등의 ‘행위오해’ 요인과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의 과잉반응이나 양심을 품는 보복성 행위로 왜곡해서 인식하는 ‘과잉반응’ 요인에 대한 남녀간 인식 차가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밝혀졌다.

성역할 관련 태도에 대한 남녀 간 차이분석¹⁾

성역할 관련 태도에 대한 남녀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적대적 성신념, 대인폭력수용, 성역할 고정관념 모두에서 남녀 간에 유의미한 성차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대적 성신념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여자는 간사

1)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심사위원 중 한 분께서 개별 문항에 따른 t검증은 비모수로 모수통계를 돌렸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들이 각 문항들에 대해 차이검증을 한 것은 각 문항에 대한 남녀의 따른 반응 경향성을 참고하고자 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이하 성역할 관련 태도도 마찬가지임.

표 2. 성역할 관련 태도에 대한 남녀 차

문항 내용	성별	평균	표준편차	t값
적대적 성신념	남자	2.76	.54	11.14***
	여자	2.10	.52	
연인관계에서도 여자는 종종 남자를 이용하려 든다	남자	3.40	.91	4.44***
	여자	2.91	1.07	
여자들은 평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일일이 들어주다가는 끝이 없다	남자	3.19	.99	12.31***
	여자	1.95	.79	
남자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자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남자	2.93	1.19	5.42***
	여자	2.26	1.01	
여자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하는 남자를 더 따를 것이다	남자	2.81	1.01	7.03***
	여자	2.05	.91	
여자는 결혼할 남자를 잡을 때까지 조신하게 처신해야 한다	남자	2.71	1.13	3.40***
	여자	2.27	1.17	
많은 여자들은 남자들을 무시할 때 쾌감을 느끼는 것 같다	남자	2.69	.89	6.21***
	여자	2.08	.85	
여자들은 대부분 간사하고 남자를 유혹하려고 별짓을 다 한다	남자	2.24	.92	3.20**
	여자	1.91	.94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뜻에 순종하도록 처음부터 기를 꺾어야 한다	남자	2.11	.87	9.40***
	여자	1.33	.57	
대인폭력수용	남자	2.39	.58	7.10***
	여자	1.97	.49	
남자는 싸워야 할 상황이라면 피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	남자	3.43	1.09	4.51***
	여자	2.88	1.08	
남자는 종종 위협을 즐길 줄도 알아야 한다	남자	2.89	1.16	7.08***
	여자	2.01	1.05	
남자가 여자를 거칠게 다루어도 여자들은 성적으로 자극을 받는다	남자	2.34	.82	4.45***
	여자	1.92	.86	
화가 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남자	2.22	.94	-3.45***
	여자	2.59	1.01	
부당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종종 주먹도 필요하다	남자	2.12	1.19	3.90***
	여자	1.64	1.00	
아내는 잘못해서 남편이 자신을 때리더라도 집을 떠나서는 안된다	남자	2.07	1.00	6.02***
	여자	1.47	.78	
여자가 잘못을 했다면 남자는 여자를 때릴 수도 있다	남자	1.68	.86	5.40***
	여자	1.24	.57	

표 2. 계속

문항 내용	성별	평균	표준편차	t값
성역할 고정관념	남자	2.65	.56	7.20***
	여자	2.19	.55	
남자는 그와 함께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모욕을 당하면 싸워야 한다	남자	3.99	.79	4.31***
	여자	3.55	1.02	
여자도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결혼과 가족이 우선이어야 한다	남자	2.99	1.15	7.36***
	여자	2.08	1.02	
아내는 절대 공개적으로 남편을 반박해서는 안된다	남자	2.56	1.07	2.92**
	여자	2.20	1.14	
결혼을 원치 않고 독신을 고집하는 여자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남자	2.49	1.17	7.02***
	여자	1.69	.84	
여자는 결혼하기 전까지 처녀이어야 한다	남자	2.45	1.12	1.768
	여자	2.22	1.14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솔직하게 요청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용하는 편이 낫다	남자	2.09	.94	2.50*
	여자	1.84	.79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다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남자	1.94	.86	1.418
	여자	1.81	.83	

*** $p < .001$ ** $p < .01$ * $p < .05$

하며($t=3.20, p<.01$), 종종 남자를 이용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t=4.44, p<.001$)으로 지각하고 있다. 또한 남자는 강하게 여자를 지시하고($t=7.03, p<.001$), 기를 꺾어야 한다($t=9.04, p<.001$)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대인폭력 수용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 비해 부당하거나($t=3.09, p<.001$), 싸워야 할 상황이라면($t=4.51, p<.001$)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으며,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자의 경우에도 잘못했다면 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t=5.04, p<.001$)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역할 고정관념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여자는 결혼과 가족, 남편을 우선해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는 결혼하기 전까지 처녀이어야 한다’는 순결 이데올로기적 관점에 대해서는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없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남자: 2.35, 여자: 2.22). 또한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다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남녀 모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 남녀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남자: 1.94, 여자: 1.81).

성희롱 행동 유무에 따른 성희롱 통념 및 성역할 관련 태도 간 차이

표 3. 성희롱 행동 유무에 따른 성희롱 통념 간 차이

요인명	집단	평균	표준편차	t값
행위오해	성희롱행동 무	2.97	.50	-2.90**
	성희롱행동 유	3.31	.56	
과잉반응	성희롱행동 무	2.69	.49	-2.42**
	성희롱행동 유	2.96	.53	
피해자 책임	성희롱행동 무	2.48	.53	-.14
	성희롱행동 유	2.50	.59	
피해과소평가	성희롱행동 무	2.64	.50	.314
	성희롱행동 유	2.61	.54	

*** $p < .001$ ** $p < .01$ * $p < .05$

표 4. 성희롱 행동 유무에 따른 성역할 관련 태도 간 차이

요인명	집단	평균	표준편차	t값
적대적 신념	성희롱행동 무	2.81	.43	-.94
	성희롱행동 유	2.90	.48	
대인폭력수용	성희롱행동 무	2.28	.47	-2.05*
	성희롱행동 유	2.56	.72	
성역할고정관념	성희롱행동 무	2.67	.30	-.77
	성희롱행동 유	2.74	.51	

*** $p < .001$ ** $p < .01$ * $p < .05$

성희롱 행동 유무¹⁾에 따른 성희롱 통념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3 참고), 성희롱행동을 했던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성희롱 행동을 친근감의 표현, 직장생활의 활력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농담을 성희롱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t=2.90$, $t < .01$). 또한 성희롱행동 경

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성희롱에 대한 피해를 여성들이 과잉반응하거나 양심을 품어서, 혹은 여성들이 과장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확대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다($t=-2.42$, $p < .01$). 이 밖에 ‘피해자 책임(성희롱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요인과 ‘피해과소평가(성희롱이 미치는 피해에 대한 과소평가경향성)’ 요인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1) 성희롱 행동정도는 남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성희롱 행동 유무에 따른 성역할 관련 태도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4 참고), ‘대인폭력 수용(남성의 폭력에 대한 수용여부)’요인에 대해서만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성희롱행동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부당하거나 싸워야 할 상황 혹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면(상대방이 여성이라도)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t=-2.05, p<.05$). 이 밖에 ‘적대적 신념요인(여성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성역할고정관념’ 요인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희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희롱 통념과 성역할 관련 태도변인의 영향력

성희롱 통념과 성역할 관련 태도변인이 성희롱 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참고). 우선, 성희롱 행동에 대한 가의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연령, 학년, 성경험, 첫 성경험, 나이 등과 성희롱 행동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r=.209$)과 성경험($r=-.257$)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회귀분석의 제 1단계에 enter방식으로 투입하였다. 제 2단계에는 성역할 관련 태도에 관한 3변인과 성희롱 통념에 관한 4변인을 enter방식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표 5 참고), 성역할 관련 태도와 성희롱 통념이 성희롱 행동의 전체 변량 중 10.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인폭력

표 5. 성희롱 행동과 성희롱 통념 및 성역할 관련변인의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DV 성희롱 행동	1단계			2단계							B	Beta	ΔR^2
	연령	성경험	대인폭력 수용	성역할 고정관념	적대적 신념	행위 오해	과잉 반응	피해자 책임	피해 과소평가				
연령	.209	1.00									.093	.136	.082**
성경험	-.257	-.347	1.00								-.289	-.210	
대인폭력 수용	.260	-.043	-.048	1.00							.227	.196	.100*
성역할 고정관념	.082	.118	.055	.242	1.00						-.001	-.001	
적대적 신념	.159	.025	-.044	.338	.270	1.00					-.007	-.005	
행위오해	.153	-.125	-.013	.280	.126	.270	1.00				.112	.092	
과잉반응	.251	-.032	-.192	.361	.317	.539	.421	1.00			.219	.167	
피해자 책임	.060	.000	.031	.184	.291	.310	.341	.489	1.00		-.075	-.067	
피해 과소평가	-.055	-.098	-.012	.084	.217	.100	.227	.154	.171	1.00	-.115	-.091	
평균	1.57	23.05	1.40	2.40	2.71	2.77	3.14	2.84	2.51	2.67	$R^2=.182***$		
표준편차	.71	2.92	.49	.57	.43	.55	.56	.50	.60	.54	Adjusted $R^2=.126$		

R=.427

수용(대인관계에서 폭력에 대한 허용성 정도) 요인과 ‘과잉반응(성희롱을 과잉반응으로 해석하는 정도)’요인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갖은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희롱 통념수용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에 대한 남녀 간 인식차이와 성희롱 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차이를 확인하고, 이들 변인들이 성희롱 행동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성희롱 통념에 대한 남녀 간 뚜렷한 지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남자들의 경우, 성희롱 사건이 행위에 대한 오해와 과잉반응으로 인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그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되었음에도 여전히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는 성희롱이 남녀 간에 있을 수 있는 행동을 여성들이 오해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해서 생긴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성역할 관련 태도변인들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여성에 대해 더욱 적대적인 성인념을 가지고 있으며, 대인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있어서는 결혼상황과 데이트상황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다르게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결혼상황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여자는 결혼과 가족이 우선’이어야 하며, ‘아내는 공개적으로 남편을 반박해서는 안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 고정관념적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데이트 상황에는 남녀 모두 ‘여자는 결혼하기 전까지 처녀이어야 한다’는 순결 이데올로기적 관점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데이트 비용도 남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어 성평등적 가치관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성희롱 경험 유무에 따른 성희롱 통념과 성희롱 관련 태도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희롱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성희롱 행동을 친근감의 표현, 직장생활의 활력소 정도의 가벼운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높고, 성희롱 피해자의 반응을 양심을 품거나, 지나치게 과장되게 표현한 과잉반응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성희롱 경험이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에 비해 대인폭력적 행동에 대해 더욱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이러한 인식의 차가 성희롱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넷째, 남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성희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희롱 통념과 성역할 관련 태도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설명력이 전체의 10.0%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 통념 중 ‘과잉반응’요인과 성역할 관련 태도변인 중 ‘대인폭력수용’요인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성희롱 교육과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일반교육의 경우, 성희롱 통념과 성역할 관련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성희롱 경험이 있는 남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행위오해’요인과 ‘과잉반응’요인 그리고 ‘대인폭력수용’요인에 대한 교육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내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성희롱 행동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혹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남학생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의도와는 관계없이 성희롱으로 인식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필요 이상으로 문제가 확대된 것은 여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잉반응 한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녀관계에서 성희롱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남학생들이 행위의 오해라고 보는 부분은 특히 성희롱에 대한 개념 규정 부분에서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의 시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가해자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상황을 피해자가 어떤 시각으로 지각했느냐가 성희롱 판단에 주요 관건이 됨을 인식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피해자가 과잉반응을 보인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학생들이 성희롱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 혹은 고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나타난 반응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희롱 예방 교육내용에 다양한 피해사례와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들자면 먼저 성희롱 통념과 관련된 부분을 들 수 있다. 통념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과 성폭력 상담소와 같은 기관의 홈페이지에 제시된 내용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척도 구성 후 요인분석을 통해서 하위요인들을 확인한 결과, 척도의 내용이 주로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 이외의 자료들을 확보하고 취합하여 보다 다듬어진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피해자 선정에서도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성희롱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계층의 조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실행의 어려움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행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여학생들도 포함하여 이들의 성희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희롱 통념과 성희롱 관련 태도 변인간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공미혜 (1995).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영향 요인. *한국여성학*, 11권, 110-137.

김양희 (1995). 성희롱: 경험과 인식, 그리고 정책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권 1호, 17-32.

김정인 (2000). 성희롱 행동의 이해와 실제: 심리학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김정인, 최상진, 손영미 (2001). 성희롱문제 시각에서 성차 및 성역할태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3), 1-22.

김정인, 최상진, 박정열 (2002). 성희롱 행위에 대한 대처인식 및 가용자원의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2), 53-74.

김현정 (1998). 직장내 성적 괴롭힘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동기와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영호, 김정인 (1996). 성적 괴롭힘(sexual

- harassment)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조직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학생생활연구*, 경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4권, 5-26.
- 박영호, 김정인 (1998). 성적 괴롭힘에 대한 태도조사 및 판단근거의 귀인분석. *인문논총*, 경남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1집, 21-45.
- 신성자 (1993).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성가심의 유형, 부정적 영향 그리고 피해여성의 개인적 상황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5집, 93-110.
- 윤유경 (1998). 성적 괴롭힘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공사논문집*, 42집, 23-43.
- 이석재 (1999). 강간통념척도의 개발과 타당성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131-148.
- 이석재 · 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97-116.
- 한국여성개발원 (2000). 공공기관 남녀 종사자 성희롱 실태조사, 여성부.
- 한국여성민우회 (1993).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민우회 (1998). 남녀 직장인의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실태보고서, 한국여성민우회.
- 홍대식 (2004). *사회심리학*, 학지사.
- Brooks, L., & Perot, A. R. (1991). Reporting sexual harassment: Exploring a predictive model.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 31-47.
- Burt, M.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17-230.
- Coles, F. S., 1986, Forced to quit: sexual harassment complaints and agency response, *Sex Roles*, 14, 81-95.
- Farley, L. (1978). *Sexual Shakedown: the sexual harassment of women on the job*. London: Melbourne House. New York, NY: McGraw Hill.
- Feild, H. S. (1978). Attitudes toward rape: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e, rapists, crisis counsellors, and citize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56-179.
- Fitzgerald, L. F., Swan, S., & Magley, V. (1997). But was it really sexual harassment?: Legal,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definition of the workplace victimization of women. In W. O'Donohue(Ed.), *Sexual Harassment: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Needham Height, MA: Allyn & Bacon.
- Gruber, J. E. (1992). A typology of personal and environmental sexual harassment: Research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1990s. *Sex Roles*, 26(11/12), 447-464.
- Gruber, J. E., & Bjorn, L. (1986). Women's response to sexual harassment: An analysis of sociocultural, organizational and personal resources models. *Social Science Quarterly*, 67, 814-826.
- Gutek, B. A. (1985). *Sex and the Workplace: The Impact of Sexual Behavior and Harassment on Women, Men, Organiz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Gutek, B. A., & Koss, M. P. (1993). Changed women and changed organizations: Consequences of and coping with sexual

- harass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28-48.
- Jenson, I., & Gutek, B. A. (1982). Attributions and assignment of responsibility for sexual harass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38, 121-136.
- Koss, M. P., & Dinero, T. E. (1988). Predictors of sexual aggression among a national sample of male college student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528, 133-147.
- Koenig, S., & Ryan, J. (1986). Sex differences in levels of tolerance and attribution of blame for sexual harassment on a university campus. *Sex Roles*, 15, 535-549.
- Koss, M. P. & Leonard, K. E. Beezley, D., & Oros, C. (1985). Nonstranger sexual aggression: A discriminant analysis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undetected offenders. *Sex Roles*, 12, 981-992.
- Lach, D. H., & Gwartney-Gibbs, P. A. (1993).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exual harassment and workplace dispute resolu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102-115.
- Lott, B., Reilly, M. E., & Howard, D. (1982). Sexual assault and harassment: A campus community case study. *Signs*, 8, 296-319.
- MacKinnon, C. A. *Sexual Harassment of Working Wome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Malamuth, N. (1987).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sexual aggression: Combining measures of past behavior with present likelihood.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528, 123-132.
- Malamuth, N., Check, J. V. P., & Briere, J. (1986). Sexual arousal in response to aggression: Ideological, aggressive, and sexu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330-340.
- Malovich, N. J., & Stake, J. E. (1990). Sexual harassment on campus: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itudes and belief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4, 63-81.
- Mosher, D. L., & Tomkins, S. D. (1988). Scripting the macho man: Hypermasculine socialization and enculturation. *Journal of Sex Research*, 25, 60-48.
- Muehlenhard, C. L., & Linton, M. A. (1987). Date rape and sexual aggression in dating situations: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86-196.
- Petty, G. M., Dawson, B. (1989). Sexual aggression in normal men: Incidence, belief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 355-362.
- Pryor, J. B. (1987). Sexual harassment proclivities in men. *Sex Roles*, 17, 269-290.
- Pryor, J. B., LaVite, C. M., & Stoller, L. M. (1993).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of sexual harassment: The person/situation interaction. *Journal of Vocation Behavior*, 42, 68-83.
- Rapaport, K., & Burkhart, B. (1984). Personality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sexually coercive college mal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216-221.
- Reilly, M. E., Lott, B., & Gallogly, S. M. (1986). Sexual harassment of university students. *Sex Roles*, 15, 333-358.
- Sinn, J. S. (1997). The predictive and discriminant

- validity of masculinity ideolog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117-135.
-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gri, S.S., Burt, M.R., & Johnson, L.B. (1982). Sexual harassment at Work: Three explanatory models. *Journal of Social Issues*, 38, 33-54.
- Tangri, S. S., & Hayes, S. M. (1997). Theories of sexual harassment. In W. O'Donohue(Ed.), *Sexual Harassment: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Needham Height, MA: Allyn & Bacon.
- Terpstra, D. E. (1986). Organizational costs of sexual harassment.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23, 112-119.
- Terpstra, D. E., & Baker, D. D. (1989). The identification and classification of reactions to sexual harassmen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0, 1-14.
- Terpstra, D. E., & Cook, S. E. (1985). Complainant characteristics and reported behaviors and consequences associated with formal sexual harassment charges. *Personnel Psychology*, 38, 559-574.
- Vaux, A. (1993). Paradigmatic assumptions in sexual harassment research: Being guided without being misled. Special issue: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116-135.
- 1 차원고접수 : 2006. 9. 5.
심사통과접수 : 2006. 12. 18.
최종원고접수 : 2006. 12. 26.

The relationship of gender and sexual harassment to sexual harassment myths and sex role related attitudes

Jeong-In Kim
Servicetech

Young Mi Sohn
Myongji Univ.

Hyo-Chang Kim
Chung-Ang Univ.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gender differences of the sexual harassment myths and sex role related attitude. Moreover We examined effects of sexual harassment myths and sex role related attitudes on sexual harassment. A total of 318 undergraduate students(166 female students, 152 mal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sexual harassment myths and sex role related attitude. Especially, male undergraduates were more likely to regard sexual harassment as behavior caused by misunderstanding and excessive response than females. Second, It was found that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wrongdoing had effect on sexual harassment myths and sex role related attitude. That is, sexual harassment wrongdoer group was more likely to think sexual behaviors as an expression of intimacy and a vitamin of work life. We also found that they were more acceptive to violent behaviors than non-group. Third,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when the effects of a grade and sex experience were partialled out, revealed that sexual harassment myths and sex role related attitude predicted sexual harassment significantly.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sexual harassment, rape, sexual violence, sex role stereotype